

코스피 ‘꿈의 5000피’ 카운트다운

연일 최고치 경신…4900선 돌파 반도체·자동차·방산주 등 ‘활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4900선을 돌파하며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코스피 5000’ 시대 개막까지 한 계단만 남겨두게 됐다.

코스피는 올해 초 4300선에서 출발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르면 이번주 내로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특정 대형주 중심의 고공행진과 트럼프발 관세 우려 등은 여전히 불안요소로 투자 신중론 등도 고개를 들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 4904.66으로 전 거래일 대비 63.92p(1.32%)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다. 지난 16일 기록했던 종가 기준 최고치 4840.74를 주말이 지나 자마자 1거래일만에 갈아치웠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올해 첫 거래일인 지난 2일부터 상승 흐름을 보이며, 이날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2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코스피 종가는 지난 2일 4300선에서 출발

해, 5일 4400선, 6일 4500선, 12일 4600선, 14일 4700선, 16일 4800선을 돌파했다. 평균적으로 1~2거래일마다 100p씩 상승한 수준으로, 코스피가 연속 상승한 12거래일 동안 13.8% 급등했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전장보다 0.23% 하락한 4829.40으로 출발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등의 매도가 하락세를 견인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 역시 순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장중 4917.37까지 치솟아 장중 신고고도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 상승세는 외국인 매수세가 이끌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5101억원을 사들였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7522억원, 236억원 팔았다.

이날 장중에는 반도체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국내 시가총액(시총) 1위를 기록한 대장주 ‘삼성전자’는 장중 15만 600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오전 중 77만 4000원으로 고점을 새로 썼다.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 기술 전시회 ‘CES 2026’을 통해 다크호스로 떠오른 ‘현대차’는 이날 전 거래일과 비교해 16.2% 급등한 48

만원에 장을 마쳤다. 이로써 현대차는 LG에너지솔루션을 넘어서 시총 3위로 올라섰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함께 19% 이상 오르는 등 상승 추세다.

코스닥은 종가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44% 오른 968.36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2034억원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1372억원, 298억원씩 순매도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동반 상승에도 트럼프발 관세 우려는 여전히 부각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최근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며 병력을 보낸 덴마크와 주변국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주식 전문가는 “이 같은 여러 외부 요인이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 강세에 대한 차익 실현을 유도하는 불쏘시개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 선정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한국전력공사(한전)는 “한전 감사실이 지난 16일 감사원이 선발하는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에 모범사례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전 감사실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T) 신기술 기반 감사업무 효율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실제 한전 감사실은 자체 개발한 ‘파일 메타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비적정 설계 감지 프로그램’

’, ‘사진 등 이미지 재사용 감지 프로그램’을 자체 감사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사자료의 유효성을 점검하는 등 분석 정확도를 대폭 높이고, 중복사진 사용 의심 건 등을 자동 추출해 효율성도 향상시켰다.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원이 주관하는 적극행정 모범사례에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것은 AI·디지털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AI 시대에 맞춰 최신 기술을 감사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기반한 감사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지역 경제 기여도 큰 지방은행, 정당한 인센티브 받아야”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은행장 간담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은행의 지역경제 기여도 등이 공공기관 금고 지정 등에서 정당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전국 10개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졌지만, 지방은행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성과들이 공공기관의 금고 선정 등에서 평가 실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9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8층 대회의실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지방은행 지우회사 회장, 지방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은행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발표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 설계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김기홍 JB 금융그룹 회장, 정일선 광주은행장, 반대인 BNK 금융그룹 회장, 황병우 i금융그룹 회장, 강정훈 i뱅크 은행장, 김성주 부산은행장, 이희수 제주은행장, 박춘원 전북은행장, 김태환 경남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 금고 지정 등에서 정당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경제와 상

생하는 금융기관이 공공기관 금고를 맡을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등 실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부 부처와 함께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은행장들은 이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금고·거래은행 선정 과정에서 지역금융 실적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 등을 거론했다. 또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RWA) 부담 완화, 정책자금의 지역은행 배정 확대, 지방채 발행 여건 개선 및 조세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역경제 기여도가 큰 금융기관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표와 기준을 재설계해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전남중기청 전남동부권 지원사업 설명회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광주전남중기청) 전남동부사무소는 20일 오후 2시부터 전남동부청사 이순신 강당에서 ‘2026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종합설명회는 8개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기술개발(R&D), 창업, 보증, 수출 등 분야별로 진행된다.

현장 설명회에 참여하면 올해 중소기업 지원사

업을 담은 책자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앞서 지난 15일 광주에서도 설명회를 열고 중기부 자금, 기술개발, 창업·벤처, 수출 등 분야별 시책과 광주시 지원 정책, 국제형 법인세 공제 감면·세정 지원 등을 안내했다.

조부식 전남동부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 정책을 활용해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해소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은행 다문화 가정 청소년 80명 대상 ‘다다캠프’

다채롭고 다양한 문화체험

금융교육·특강…꿈·진로 탐색

광주은행은 “지난 13~16일 정읍 JB아우름캠퍼스에서 호남지역 다문화 가정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로 ‘다다캠프(다채롭고 다양한 문화체험 캠프)’를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꿈과 진로를 탐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들은 캠프 기간 동안 광주은행 임직원이 진행하는 금융교육 및 금융골든벨, AI체험 프로그램, e스포츠 산업 이해 프로그램, 도미노 협동 체험, 취미가 직업이 된 이야기 특강, 양궁 및 배드민턴 재능기부 프로그램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청소년 맞춤형 특강을 통해 올바른 금융 가치관 형성을 도왔고, 국내 최고 인기 e스포츠 팀인 SKT T1이 참여하는 산업 이해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었다.

종이비행기 국가대표의 특강을 통해 취미가 진로로 정해지는 과정을 비롯한 광주은행이 운



영하는 ‘텐텐양궁단’과 ‘비츠로 배드민턴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해보기 어려운 경험을 제공했다.

이상재 광주은행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번 캠프가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

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은 광주전남 중소기업 신규대출 7월까지 연장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중소기업 한시특별자금 지원의 신규대출 취급 기한을 올 1월에서 7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유보분을 활용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소비 회복, 수출 증가 등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지방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회복은 지연되고 있어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신규대출 총 규모는 7729억원으로 저신용(6~

10등급·무등급·SOHO)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의 75%를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연 1.00%로 지원한다. 신규대출 취급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대출잔액에 대해서는 만기(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 기준 10억원 이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 연장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면세사업자 167만명 2월 10일까지 수입 신고

국세청 유튜브 첫 포함 신고 안내

국세청은 19일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167만명은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 지출 사업경비,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 사업장 운영 현황이다. 대상자가 작년 158만명에서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에게 안내문을 21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발송한다.

모바일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장 세장’의 하나로 올해 처음으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게 최초로 신고 안내를 한다. 아울러 연간 용역제공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넓혔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부비용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1544-9944)에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부동산학회 광주지부 부동산 투자 전략 강의

(재)대한부동산학회 광주지부는 “20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대강당에서 올해 부동산 정책 변화를 알아보고 올바른 부동산 투자 전략을 위한 무료 강의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강사로 나서는 정영수 대한부동산학회 광주지부장은 올해 대외 경제 환경과 연계한 부동산 시장·경제 환경의 미래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정 지부장은 경영학 박사로 전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전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냈다.

대한부동산학회 광주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 환경에서 벗어나 올해에는 새 정부의 정책 효과로 경기 저점 통과 후 회복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강의에서는 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가 시각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올바른 경제 생활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20명으로 마감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4904.66 (+63.92)
↑ 코스닥	968.36 (+13.77)
↑ 금리 (국고채 3년)	3.130 (+0.050)
↑ 환율 (US D) 〈오후 5시 08분 기준〉	1475.75 (+2.15)

비수도권 지자체 77% “지방소멸 위험”…전망도 부정적

한경협 120곳 ‘현황·과제’ 조사

강원권 85.7%·전라권 78.6%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및 광역시와 세종, 제주를 제외한 시군 지자체 1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 77.0%는 현재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에서 가장 많은 85.7%의 응답 지자체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

다고 답했다. 이어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그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가 뒤를 이었다.

지역 인프라에 대한 평가에서도 ‘산업·일자리’ 항목이 2.1점(5점 만점)으로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교육·대학’(2.2점), ‘문화·여가’(2.45점), ‘의료·보건·돌봄’(2.54점) 등의 점수가 낮았다.

비수도권 지자체 97.0%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 대응책을 추진 중인 지자체의 절반 이상(54.6%)은 정책의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64.0%는 향후 5년 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묻는 말에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꼽았다. 그 외에는 ‘주택 보급·거주환경 개선’(19.5%),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12.5%), ‘거점공공병원 등 의료 서비스 강화’(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등의 순으로 정책 수요가 높았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